

# 광주시 민관협치, 민주적 모델 자리매김

### 도철2호선·광주형일자리·장록습지·무등산 보호 찬반 엇갈린 주요 난제들 공론화로 해법찾기 도움 명분쌓기용 지적도...시정 방향 다를 땐 갈등 소지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 난제들을 공론화로 풀어나가는 광주시의 민관협치 행정이 크고 작은 성과를 내면서 차츰 민주적인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민감 현안에 대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과 시정 방향과 다를 경우 예기찮은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은 협치 행정의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책 표류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지역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시민 주도 의사 결정을 위한 민관 협치가 민선7기 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찾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16년 만에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도시철도 2호선을 신호탄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거버넌스 ▲병상연대 등도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들로 꼽힌다.

또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 대책위원회 운영,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협의회 운영, RE100추진위, 복지협치위 운영 등도 모범적 협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인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슬픈 위기를 맞았지만 각계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해 대구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던 환자들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

계, 5·18단체 등과 함께 이른바 '병상 연대'에 나선 데 대해서도 "역시 광주"라며 전국적으로 찬사가 이어졌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 국가습지 지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무등산 신앙파크호텔 부지 개발을 둘러싼 민·관·정·학 협의도 난개발 방지에 일등공신이 됐다.

시는 민관 협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치소통,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교육 등 10개 분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견이 극명한 현안에 대해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 위원회 등을 급조해 뜨거운 논쟁을 급속 냉각시키거나 기계적 협치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정의 기본방향과 다른 쪽으로 결론이 도출될 경우 민관 협치가 되레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협의기구가 시정 명분쌓기용이나 출구전략에 악용되면 "견제력을 상실했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이강 대변인은 "각계 의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민관협치의 모델이야말로 광주가 추구하는 민주도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광주 거주 미안마인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안마 출신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더 넓고 신나게”...‘확’ 바뀌는 광주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 최대 80명 규모 정원 내년 3월 증축 개원 목표 사업 추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구 실현...육아부담 해소 기대



정원으로 증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6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는 설계 완료 이후 7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공사는 현 부지 일원에 보육실과 자료실 및 화장실, 놀이터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증축이 완료되면 시설면적이 현재 329.76㎡에서 659.76㎡로 2배 가량 넓어진다.

자녀를 둔 직원들은 이번 증축이 육아부담을 덜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보육 부담을 줄여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증축 사업의 안전한 추진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서구청 어린이집은 2017년 9월 개원한 이후 직원들의 취학 전 자녀 총 74명이 졸업했으며, 2019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A등급에 선정되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최윤희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납득에서 제인한 슬로런입니다.

## 동구, '구정의 감시자' 제3기 구민감사관 모집

광주 동구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기 구민감사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민감사관은 관내에서 ▲구민 생활불편·불만사항·부조리 제보 ▲구정 발전사항 건의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관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구민감사관 임기는 4월 19일부터 2년이며, 자격요건은 동구에 주민등록(또는 사업장)이 돼 있고, 문화·환경·건설·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나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 서구 염주체육관,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광주 서구는 염주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다음달 첫째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서구는 백신 냉동도 설치 등 접종 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19일 오전 중에는 센터 운영의 적절성 검토와 이상 반응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벌였다.

예방접종센터에는 80여 명 규모의 의료진·행정요원이 투입됐다.

## 남구, '외국인 민원 증가' 통역서비스 제공

광주 남구는 18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통·번역기와 통역 서비스 사전 예약제 등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 관련 5가지 시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구청에서 남구청과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 외국인 통역서비스 구축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 창구에서 외국인에 대한 민원 응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협약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힘을 합쳐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북구, 이달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금곡동 11-2번지 일원 1033필지, 장동동 1번지 일원 167필지, 임동 19-1번지 일원 202필지로 총 1402필지 115만 5492㎡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목적,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690명에게 온라인 안내문을 보냈다.

## 김삼호 광산구청장 "행복영향평가 도입하겠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국내 최초로 행복을 주제로 지난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행복영향평가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구정 목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체화시킨 과정과 경험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으로 행복의 불확실성과 추상적인 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제시한 데이터 정책은 '행복지표와 '시민행복도' 조사이다. '행복지표'는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역할로 사람, 공동체, 환경 3개 대영역, 12개 소영역, 27개 항목, 100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가 전문가와 함께 2019년 12월에 개발했다.

임형택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고소득층

1.7배

125,531원

4분위

2.1배

79,147원

3분위

2.7배

48,103원

2분위

5.3배

26,697원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